상용의식 오류 찾아 바로잡기 나서다



불교상용의식해설: 예식의궤를 중심으로
혜천 정오 · 우천 이성운 공역
정우북스 / 2만원

정오 스님, 이성운 교수 역해
일심봉청→일심예경 등 수정
"상용의식, 불자들도 알아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어산종장 정오 스님이 새로 발간한 〈불교상용의식해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교에서 '의례'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행 · 신앙 체계를 구체적 실천행위로 보인 것이다. 넓게 보면 예배행위를 비롯해 해당 종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용의식, 생활의례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며,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의식들을 형성하게 된다. '의례'가 바르고 정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계종 어산종장 혜천 정오 스님(한국불교전통의식전승원 학장)과 우천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가 공역한 〈불교상용의식해설: 예식의궤를 중심으로〉는 바른 불교 의례를 위한 노력들이 담겼다.

정오 스님은 "불교 의례는 불교 이념과 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붓다를 스승으로 삼아 따르겠다는 서원을 최상의 예경인 정례로 표현하는 것이고,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은 그 길을 다시 듣고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의례는 불교를 실천하는 몸짓이다. 결국 의례를 잘하는 것이 불교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젠 상단불공(예식)은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상용의식'에 대한 개념도 정리했다. "특정 신불을 소청해 권공하는 수륙재 형식이 아닌 봉안해 모시고 신행하는 사람들과 공양을 드리고 축원하는 형식"임을 분명히 했다. 상단 중단 등의 권공, 시식과 영반, 대령과 관욕, 예경문 등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의식을 상용불교의식으로 수용했다.

종전의 불공이라는 표현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이므로 신중불공 지장불공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역자들은 "기존 권공은 거불 · 보소청진언 · 유치 · 청사 · 가영 · 헌좌진언 · 정법계진언 · 4다라니 · 예참 · 운심공양진언 · 보공양진언 · 보회향진언 · 원성취진언 · 보궐진언 · 탄백 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의식은 지금 설단된 곳에 공양 올릴 대상이 계시지 않아 청하여 모시고 올리는 공양의식"이라며 "현재 권공의 대상은 대부분 불전이나 각단 혹은 각 전각에 조상 · 봉안 · 점안해 신불로 신앙하고 있으므로 아침저녁 예경을 하듯이 특정의 공양을 권할 때가 되면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드리고 연유를 아뢰고 권공을 하면 법식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새롭게 의례를 재편하기보다는 기존 의례를 수정하는 데 방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일심봉청(일심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하는 구절을 "일심예경(일심으로 경례 올립니다)"으로 교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강림도량(도량에 강림하십시오)" 하는 것을 "불사자비(자비를 버리지 마시고)"라고 하여 "이곳에 오셔서 공양을 받으시라"를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공양을 받아주소서"라는 식으로 유치문을 교정했다.

역자들은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봉안된 신불에게 권공하고 시련 대령, 반혼재 등의 기존 의례의 개념을 재정립해 해설하고 있는 점"이라며 "그런 까닭에 새로운 의례를 축조하기보다 의례의 본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전통 의례를 편집 · 번역 · 해설했다"고 밝혔다.

원로 민속학자의 구법여행

목포 정혜원부터 부산 해동용궁사
약 1300㎞ 직접 걷고 써낸 기행문



남해안 108 성지순례 ① · ②
김용덕 지음
북마크 / 각 1만6000원

민속학계 원로인 김용덕 한양대 명예교수는 민속학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에도 고마운 존재다. 그동안 불교민속과 관련된 논문이나 저서를 다수 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연등회와 수륙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끈 공신이기 때문이다. 9년 전 강단을 떠나며 〈한국 불교민속문화의 현장론적 고찰〉을 펴낸 그가 이번에는 학자가 아닌 부처님 법을 찾아 여행하는 '남순동자(선재동자)'가 됐다.

〈남해안 108 성지순례〉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따라 약 1300㎞에 분포한 전통사찰을 직접 걸어서 순례한 기행문이다.

대상 사찰은 창건 100년이 넘은 옛 절. 목포 유달산 정혜원을 시작으로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까지 약 2년에 걸쳐 이어진 구법여행은 지난날에 대한 저자의 발로참회다.

어린 시절 출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도 제대로 된 수행을 해보지 못했다는 성찰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일본 헤이안시대 고승인 홍법대사 쿠카이 스님의 발자취가 남은 시코쿠 '오헨로' 순례길 체험은 저자가 국내 전통사찰 순례를 기획한 밑거름이 됐다.

〈남해안 108 성지순례〉는 단순히 108개의 전통사찰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행문이듯이 저자가 직접 겪은 도로 사정이나 거리, 숙식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여기에 사찰의 폐사나 중건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면서도 불교 교리나 상식에 대한 설명도 더했다. 또 '조계산 천자암'에서는 젊은 세대가 체험하지 못한 보릿고개를 가수 진성의 노래에 빗대 친근하게 읽히도록 경험을 풀어내고, '천태산 개천사'에서도 가수 나훈아의 '공'을 통해 불교의 공사상을 설명한다.

김용덕 명예교수는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 5명 중에 두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일본에도 세계인이 찾는 여러 순례길이 있다"며 "이 책은 직접 순례를 떠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 잡지 톺아보기

사찰로 온 헤라클레스를 만나다



월간 〈불광〉 11월호

불광출판사가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잡지 월간 〈불광〉 11월호(통권 589호)가 발간됐다. 이번 달 특집 주제는 '금강역사; 사찰로 온 헤라클레스'다.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을 지나 금강역사가 있는 금강문,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을 지나야 법당에 다다를 수 있다. 간다라 지역에서 붓다의 호위무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금강역사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 사찰 입구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역사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의 형상을 차용한 것은 특이하다. 네메아의 사자를 죽인 후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팔에 걸치거나 머리에 썼는데, 간다라 지역 금강역사의 초기 도상에 이 모습이 표현돼 있다. 금강역사가 헤라클레스를 통해 그리스 문화를 간직하며, 중국을 지나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다.

월간 〈불광〉 11월호에서는 수문장 역할을 한 금강역사의 초기 모습을 석굴암과 석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 석탑을 조성할 때 법당을 형상화해 문을 조성했는데, 한 쌍의 금강역사가 석탑의 문을 지키고 있다. 후대로 갈수록 석탑에 사천왕상이 조각되는데, 화엄사 사사자 석탑 등을 통해 변화과정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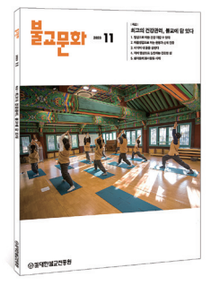
한편, 금강역사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새롭게 해석하는 글도 실렸다. 한 쌍의 금강역사 중 한 구는 입을 다물고 한 구는 입을 열고 있는데, 지금까지 범어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범어의 '아'와 '흠'으로 해석했다. 임영애 교수는 입을 열고 닫는 것은 '음양'을 표현하는 지극히 중국적인 문화로 지적했다.

유근자 교수는 우리나라 사찰에 금강문 외에 명부전 나한전 등에도 금강역사상이 조성되는데 이는 '장군상'이며, 아울러 '장군상'의 모습이 금강역사상으로 조성되는 과정도 살폈다.

△ 간다라 불전미술과 금강역사 △중국 금강역사상의 변신 △신라 문화의 수호자 금강역사 △사천왕과 금강역사 △장군상과 금강역사 △도량의 호법신장, 팔금강 등 금강역사의 요모조모를 알 수 있는 특집 원고들이 수록됐다.

신중일 기자

건강관리 해법, 불교에 있다



월간 〈불교문화〉 10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11월호(통권 279호)가 발간했다.

〈불교문화〉 11월호 특집은 '최고의 건강관리, 불교에 답 있다'이다. 특집에서 문일수 동국대 WISE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는 '명상으로 마음 건강 지킬 수 있다'를 주제로 코로나 블루의 대응 방법으로 명상을 통한 사띠 힘을 기를 것을 제안하며,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기를 권한다.

김종우 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마음챙김으로 하는 운동과 신체 건강'을 주제로 현재 인류가 겪는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활동 부족을 지적하며 건강한 활동은 마음챙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음챙김 걷기를 소개했다. 문성희 자연 요리 연구가는 '채식이 내 몸을 살린다'를 주제로 채식 생활은 생태와 환경을 덜 더럽힐 뿐 아니라 몸의 파동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차분하게 만들어줘 수행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목탁소리 지도법사인 법상 스님은 '자비명상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삶'에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먼저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김태겸 수필가는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을 소개하며 불자들에게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2023년 하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캠페인은 진윤주 프로젝트 기획자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상징인 패스트 패션(fast fasion)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자현 스님의 비하인드 팔상도, 수하항마상도', '문화재의 시선으로 보는 절집 이야기, 사천 다솔사' 등 풍성한 읽을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다!

6년여에 걸친 대작 불사
우리 역사와 정신문화의 총체를 담은
불교 문헌 10권을 엄선하여 영역하다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10권 완간
Se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대한불교조계종 — 불광출판사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10권

1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Avataṃsaka-sūtra* (화엄경 문답)
2 *Seon Thought in Korean Buddhism* (한국 선사상)
3 *The Moon Reflected in a Thousand Rivers* (월인천강지곡)
4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of Korea* (한국 고승전)
5 *Buddhist Apologetics in Early Modern Korea* (조선 호불론)
6 *The Orthodox Path of Seon* (선문정로)
7 *Pure and Fragrant* (맑고 향기롭게)
8 *The Ontology of Seon* (선의 세계)
9 *Buddhist Thought of Korea* (한국의 불교사상)
10 *Korean Buddhist Sculpture* (한국의 불상)